

## 「見」字의 특수용법 小考

안 재 철

(인문대 중어중문학과)

### 차 례

1. 머릿말
2. 「見」字의 여러가지 의미
3. 「見」字의 특수용법
  - 3.1 被動文에 쓰이는 경우
  - 3.2 受事者를 지시하는 경우
4. 맺음말

### 1. 머릿말

本稿의 목적은, 「見」字가 本義인 「보다」라는 뜻 외에도 다른 용법으로 쓰이는 예가 보이므로 그러한 용법의 명확한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한 용법의 명확한 의미를 밝히는 데에는, 먼저 그것의 品詞<sup>1)</sup>를 밝히는 것이 先行되어야 하며, 품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品詞分類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먼저 그 기준을 설정하기로 한다.

中國語에서 品詞를 分類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1) 中國語語法에서 品詞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單語의 구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品詞에서 詞라는 말은, 사실 오늘날 一般言語學에서 말하는 單語라는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一般言語學에서 單語라고 하면 대체로 最小自立形式으로, 最小有意味單位인 형태소와는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我來了」에서 「了」는 의미상으로는 더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것이지만,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이것을 단어와는 구분하여 형태소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中國語語法에서 詞라고 하면 이것 까지를 포함하므로, 本稿에서 말하는 品詞의 구분은 곧 형태소의 구분인 것이다.

品詞의 分類는 1845년 江蘇省 사람 馬建忠이 《馬氏文通》에서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한 것에 영향을 받아, 단순히 意味論의인 觀點으로만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의 몇가지 방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 ① 형태소가 나타내는 의미의 성질, 즉 형태소의 개념에 의한 구분<sup>2)</sup>
- ② 형태소가 서로 결합되는 관계, 즉 형태소의 성질에 따른 구분<sup>3)</sup>
- ③ 형태소가 문장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구실을 하는가, 즉 형태소의 기능에 의한 구분<sup>4)</sup>

등이 그것이다.

《馬氏文通》이 쓰여진 이후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品詞를 각기 다르게 구분하고 있듯이<sup>5)</sup> 한가지 설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本稿에서는 本人의 主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①②

- 2) 예를 들면 「江」, 「山」 등은 사물의 명칭인 名詞이고, 「我」, 「他」 등은 사물을 대신하는 代詞이고, 「來」, 「去」 등은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動詞이고, 「大」, 「小」 등은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形容詞인 것이다.
- 3) 영어의 「-ty」, 「-ness」, 「-tion」, 「-ment」 등이 名詞形詞尾이듯이 「인도-유럽어」계 언어는 형태가 발달된 반면, 孤立語인 중국어는 형태가 그렇게 발달하지는 못했으나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木頭」, 「學者」, 「蓋兒」, 「椅子」 등에서 「頭」, 「者」, 「兒」, 「子」 등은 名詞形詞尾이며, 「阿姨」, 「老鼠」 등에서 「阿」, 「老」 등은 名詞形詞頭라고 할 수 있다.
- 4) 예를 들어 문장에서 主語가 될 수 있는 것은 「江」, 「山」 등과 같이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名詞와 「我」, 「他」 등과 같이 사물을 대신하는 代詞 등이며, 문장에서 述語(謂語)가 될 수 있는 것은 「來」, 「去」 등과 같이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動詞와 「大」, 「小」 등과 같이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形容詞 등인 것 같이, 單語가 문장에서 어떤 문장성분이 되는가에 따르는 분류이다. 이런 분류법을 통해 중국어가 영어와 다른 점을 보면, 중국어의 「她很好看」에서 「好看」은 意味로 보면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形容詞라고 할 것이나, 같은 의미의 영어 문장 「She is beautiful」에서 의미적으로 形容詞인 「beautiful」은 be동사 「is」의 도움을 받아, 문장에서 述語(謂語)의 역할을 하지만, 中國語는 영어의 be동사와 비슷한 「是」의 도움이 없이도 述語가 되는데, 이는 문장에서의 지위로 볼 때, 영어의 동사와 같은 성질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中國語에 있어서 品詞分類는 자체의 특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 5) 학자에 따라 각기 달리 구분하고 있는 품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한 《現代中國語文法の諸問題》(鄧福南 著, 宋龍準 譯, 中文出版社, 대구, 1991, 32-33 쪽)을 참고하면, 8·9·10·11 品詞 등으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다.

③④⑤⑥를 實詞, ⑦⑧⑨⑩⑪을 虛詞로 분류한다.

- ① 名詞: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 ② 數量詞<sup>6)</sup>: 사람이나 사물, 그리고 동작 행위의 수와 양을 표시한다.
- ③ 代詞: 名詞를 대신하는 것이다.
- ④ 動詞: 動作이나 존재·판단 등을 나타낸다.
- ⑤ 形容詞: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 ⑥ 副詞: 動詞나 形容詞 그리고 다른 副詞를 수식한다.
- ⑦ 助動詞<sup>7)</sup>: 動詞의 작용을 돕는다.
- ⑧ 介詞: 名詞代詞 또는 名詞性詞組<sup>8)</sup> 등의 앞에 쓰여, 그것을 動詞나 形容詞와 연결시킴으로써, 그것의 시간·위치·방법·원인 등의 관계를 나타낸다.
- ⑨ 連詞: 單語와 單語, 詞組와 單語, 詞組와 詞組 등을 연결하여, 서로 연관된 관계인 것을 나타낸다.
- ⑩ 助詞: 다른 단어나 詞組와 문장 등에 붙어 일정한 문법의의 즉 結構關係나 語氣등을 표시한다.
- ⑪ 嘆詞<sup>9)</sup>: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감정을 나타내거나 대답 등에 쓰인다.

이외에도 「率爾而對, 莞爾而笑(솔직이 대답하고, 빙긋이 웃다)」에서 「爾」와 같이 單語<sup>10)</sup>의 구성성분이 되는 것을 詞頭나 詞尾로,

- 6) 數詞를 形容詞로, 量詞를 名詞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지만, 「三人行必有我師焉.」, 「三顧臣于草廬之中.」에서와 같이, 古代中國語에서는 數詞를 「人」과 「顧」라는 名詞나 動詞 앞에 직접 붙여줌으로써 量詞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現代中國語에서는 상당히 발달하였으므로 독립시켜 따로 설정한다.
- 7) 때로는 助動詞를 動詞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반드시 動詞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虛詞), 動詞가 最小自立形式(實詞)인 것과 구분하여 따로 설정한다.
- 8) 詞組는 Phrase로 知語라고도 한다.
- 9) 다른 實詞와 어떤 관계를 맺지않을 뿐 아니라, 문장성분도 없되지만, 독립하여 문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實詞인지 虛詞인지 결정하기가 어려우나, 문장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虛詞로 분류하기로 한다.
- 10) 「率爾而對, 莞爾而笑.」에서 「爾」는 「率爾」, 「莞爾」라는 副詞의 구성성분이 되며, 助動詞·介詞·連詞·助詞 등의 虛詞가 最小自立形式이 되지 못하는 것과는 같으나, 助動詞·介詞·連詞·助詞 등은 문장성분이 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形態素에 附加的으로 첨가되는 것에 불과하고, 결코 그것이 홀로 문장성분이 되는 것이 아

可(=不可)이 副詞와 助動詞의 결합이며, 盍(=何不)이 疑問代詞와 副詞의 결합인 것과 같이, 두가지의 다른 의미와 작용을 하는 것을 兼詞로 하여, 따로 品詞의 하나로 설정하기도 하나, 詞頭나 詞尾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성분이 될 수 없으므로 삭제하며, 兼詞는 몇 글자에 국한 될 뿐아니라 이미 두글자의 결합으로 보아야하므로 삭제하여, 品詞에 포함시키지 않고 서술하기로 한다.

## 2. 「見」字의 여러가지 의미

「見」字는 甲骨文을 보면, 위는 눈을 아래는 사람을 그림으로써,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것을 표시한다. 또한 許慎의 《說文解字》를 보면 「見, 視也.」라고 밝히고 있다. 즉 本義는 「보다」라는 뜻의 動詞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昨夜見軍帖, 可汗大点兵. (어제 저녁에 군사포고문을 보았는데, 임금님이 널리 동원령을 내리셨습니다.)

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현명한 사람을 보고 갈아질 것을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고 내 스스로 깊이 반성하다.)

見義勇爲. (의로운 사람을 보고 용감하게 행동하다.)

閒上山來看野水, 忽於水底見青山. (한가롭게 산에 올라가 들녘의 시냇물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냇물의 아래에 푸른산을 보았다.)

등이 있는데,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보이는 대상이 「昨夜見軍帖, 可汗大点兵.」이나 「閒上山來看野水, 忽於水底見青山.」과 같이 사물일 수도 있지만, 「見賢思齊焉」이나 「見義勇爲」와 같이 사람일 수도 있다.<sup>11)</sup> 이렇게 보이는 대상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 많은 뜻이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니므로, 품사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11 「見賢思齊焉」, 「見義勇爲」의 「賢」, 「義」는 사람이 아니고, 「현명한 것」과 「의로운 것」이란 일(事)일 수도 있을 것이다.

①. 사람이 사물을 보다.

보이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사물인 경우를 보면:

子曰:「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급히 서둘지 말고, 적은 이득을 보지 말라. 서둘면 통달하지 못하고, 적은 이득을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曰:「今之成人者, 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인간 완성은 하필 이렇게 할게 무엇인가? 이득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생명을 바칠 줄 알고, 옛날의 약속이라도 이전의 자기 말을 잊지 않는다면, 역시 인간 완성이라 할 수 있다.」라 하였다.)

등이 있다.

②. 彼此가 서로 상대를 보다.

보는 대상이 사람에 국한 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보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쌍방이 서로 상대의 보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쌍방이 彼此간에 서로 상대의 보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荀慈明與汝南袁閭相見, 問潁川人士, 慈明先及諸兄. (荀慈明과 汝南의 袁閭가 서로 보면서, 潁川의 指名人士들을 묻는데, 荀慈명이 먼저 그의 몇 형제들을 말하였다.)

鄭玄在馬融門下, 三年不得相見, 高足弟子傳授而已. (鄭玄이 馬融의 門下에 학생이 된지 三年 동안 선생과 서로 보지 못하고, 단지 훌륭한 제자가 지도할 따름이었다.)

등이 있다.

③. 아래사람과 손님이 主動的으로 윗사람과 주인을 대면하다.

보는 대상이 사람일 때는, 彼此가 서로 상대의 보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보는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보는 경우도, 두사람 간의 신분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다른 상황이 발생되는데, 먼저 아래사람이나 손님이 主動的으로 앞으로 나아가 윗사람이나 주인을 대면하는 경우를 보면:

孟子見齊宣王曰:「所謂故國者, 非謂有喬木之謂也, 有世臣之謂也。」  
(孟子가 齊宣王을 보고 말하기를, 「이른바 오래된 나라란 큰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충성을 바친 신하가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莊暴見孟子曰:「暴見於王, 王語暴以好樂, 暴未有以對也。」  
(莊暴가 맹자를 보고 말하기를, 「제가 임금을 알현하자, 왕께서 음악을 좋아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는 대답을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庶人不傳質爲臣, 不敢見於諸侯, 禮也。  
(庶人은 예물을 바쳐 臣下가 되지않고서는 감히 諸侯를 보지 않는 것이 禮이다.)

등이 있다.

④. 윗사람과 주인이 主動的으로 아래사람과 손님을 만나다.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보는 것에서, 윗사람이나 주인이 主動的으로 아래사람과 손님을 만나는 경우를 보면:

秦王坐章台見相如, 相如奉璧奏秦王, 秦王大喜, 傳以示美人及左右, 左右皆呼萬歲。  
(秦王이 章台에 앉아 相如를 접견하는데, 相如가 和氏璧을 받들어 秦王에서 올리자, 秦王이 크게 기뻐하고, 左右의 美人과 臣下들에게 주어 감상케하자, 모두가 만세를 불렀다.)

子見齊衰者, 冕衣裳者, 與鞶者, 見之, 雖少, 必作, 過之, 必趨。  
(공자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나 관복을 입은 사람이나 소경을 보면, 보아

서 비록 어려도 일어났으며, 지날 때는 총총걸음을 걸었다.)

등이 있다.

⑤. 被動을 표시한다.

아래사람이나 손님은 主動的으로 윗사람이나 주인을 만나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윗사람이나 주인에게 불려가 被動的으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생각은 결국 「당하다」라는 被動的의 의미로 발전하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信而見疑, 忠而被謗, 能無怨乎. (신의가 있으나 의심을 받고, 충성되나 비방을 받으니, 원한이 없을 수 있겠는가?)

臣誠恐見欺于王而負趙, 故令人持璧歸, 間至趙矣. (신은 진실로 왕에게 기만 당하여, 趙王의 뜻을 저버릴까 두려워서, 사람으로 하여금 和氏璧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였으니, 趙나라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등이 있는데, 이것의 특징은 「見」字가 동사 앞에 쓰이는 것이다.

⑥. 受事者를 指示한다.

위와 같이 「見」字가 동사 앞에 놓이는 경우는, 이외에도 「見」字 자신이 다시 동작행위의 受事者를 指示하는 작용까지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自陳卓幾見殺之狀. (스스로 董卓이 몇 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상황을 진술했다.)

冀君實或見恕也. (당신은 나를 양해해 주기 바라네.)

등이 있으며, 現代中國語의 「見教」(가르침을 받다), 「見諒」(양해해 주십시오), 「見告」(알려 주십시오), 「見示」(보여 주십시오) 등은 그러한 예의 일종인 것이다.

⑦. 나타나다.

「見」字는 「출현하여 나타나다」라는 의미, 즉 행위의 主動者가 스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sup>12)</sup>, 이런 경우를 보면:

秦王謂軻曰:「取舞陽所持地圖。」軻既取圖奏之,秦王發圖,圖窮而匕首見。(秦王이 荊軻에게 「舞陽이 올린 地圖를 가져와라.」고 하자, 荊軻는 곧 地圖를 올렸으며, 秦王이 地圖를 펴 마지막에 이르자, 비수를 가지고 나타났다.)

子曰:「篤信好學,守死善道.危邦不入,亂邦不居.天下有道則見,無道則隱.---(공자께서:「곧게 믿어 배우기를 좋아하고, 죽음으로써 도를 높여라. 위태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말고, 문란한 나라에 살지 말라.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고, 도가 없으면 숨어라.---,」라고 말씀하셨다.)

등이 있다.

⑧. 천거하다, 나타나게하다.

행위의 主動者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천거하다」 또는 「나타나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sup>13)</sup>:

胡不見我于王。(어찌 왕에게 나를 천거하지 않는가?)

孟子曰:「好名之人,能讓千乘之國.苟非其人,簞食豆羹見於色.」(孟子께서 「명성 얻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승의 나라를 사양할 수 있다. 만약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한 그릇의 밥이나 국에도 욕심의 빛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孟子曰):「---子豈若是小丈夫然哉.諫於其君而不受,則怒,悻悻然見於其面,去則窮日之力而後宿哉.」(맹자께서 「---내가 어찌 졸장부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임금에게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12) [古시대에는 「現」字가 없었으므로 「見」字를 썼으나 후에 「現」으로 쓰게 되었다.

13) 이 경우도 「나타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같이, 후에 「現」으로 쓰게 되었다.



않는다고 화를 내고, 발끈하여 얼굴에 나타내며, 떠난다고 하루종일 힘을 다해 떨어져 나가 목을 수가 있겠습니까?」고 하셨다.)

등이 있다.

⑨. **판별하다.**

現代中國語의 「看見」·「望見」·「瞧見」·「聽見」·「聞見」 등과 같이, 「動詞+結果補語」의 형태로 된 複合動詞의 두번째 성분, 즉 結果補語성분으로 쓰이는 「見」字와 같이, 「판별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視而不見. (보지만 판별할 수 없다.)

가 있다.

⑩. **見解, 識見**

이외에도 「사물을 본 후 습득한 見解나 識見」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一得之見. (한번에 얻은 식견)

遠見卓識. (원대한 견해와 뛰어난 식견)

등을 들 수가 있다.

3. 「見」字의 특수용법

위에서 설명한 의미들 중에서, 被動을 표시하는 경우와 「見」字 자신이 동작행위의 受事者를 指示하는 경우는 비교적 특수하므로, 더욱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被動을 표시하거나, 受事者를 指示하는 경우의 「見」字는 그 品詞를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단지 그것들이 모

두 動詞의 앞에 위치하므로 動詞로 분류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이런 두 가지 용법에 쓰이는 「見」字의 品詞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그러한 견해의 잘잘못을 가려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3.1 被動文에 쓰이는 경우

小人欺君子  
漢高祖擒韓信

은 主動文인데 만약 「見」字를 써서 被動文으로 고치면,

君子見欺於小人  
韓信見擒於漢高祖

이 되고, 이것을 다시 現代中國語로 고치면,

君子被小人騙了  
韓信被漢高祖捉住了

로 할 수 있다.

즉 古代中國語에서 「見」字를 사용한 被動文의 句型은

受事者-見-動詞-於-施事者

이고, 現代中國語 被動文의 句型은

受事者-被-施事者-動詞

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古代中國語와 現代中國語의 被動文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古代中國語에 쓰이는 「見」字는 現代中國語의 「被」字에 相當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古代中國語에 쓰이는 「見」字는 반드시 動詞와 붙여서 써야하는 반면, 現代中國語

에 쓰이는 「被」字는 動詞와의 사이에 施事者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見」字의 品詞를 살펴보기 앞서, 우선 「被」字를 쓴 「被」字句<sup>14)</sup>를 통하여 「被」字의 品詞<sup>15)</sup>를 살펴보면, 어떤 학자는 “行爲動作의 施事者를 이끄는 「被」字는 行爲動作의 施事者와 함께 介詞結構를 만들어 동사를 수식하므로 狀況語로 쓰이는 介詞이고; 行爲動作의 施事者를 갖지않는 「被」字는 직접 動詞 앞에 붙여쓰기 때문에, 반드시 名詞·代詞 혹은 기타 다른 단어나 詞組와 어울려 介詞結構를 만들어야만 動詞를 수식할 수 있는 介詞의 特性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助詞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sup>16)</sup>, 어떤 학자는 施事者의 有無에 따라 介詞와 助詞로 나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介詞로 보기도 한다.<sup>17)</sup>

따라서 우리는 학자들의 이런 論議를 참고 삼아, 「被」字가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品詞를 결정해 본다면,

布使人鼓箏于帳中，密亡去。送者夜起，斫帳被皆壞。(여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휘장 속에서 아쟁을 타게하고 몰래 도망갔다. 호송한 사람들은 밤에 일어나 휘장과 이불을 모두 찢어 버리게 했다.)

- 14) 일반적으로 被動文은 被字句와 非被字句로 나누어, 被字句라고 하면 被動標識가 있는 被動文을 말하고, 非被字句는 「信寫好了」와 같이 被動標識가 없어서 형식은 主動文이나 意味上 被動文인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本稿에서 「被」字句라고 하면, 被字句가 「見」, 「爲」字 등도 被動標識인 것으로 말미암아 代表字인 「被」字를 써서 命名한 것과는 달리, 「見」字나 「爲」字가 아닌, 단지 「被」字만을 쓴 被動文을 指稱하기로 한다.
- 15) 本義는 《說文解字》(被, 衾衣長一身有半, 從衣, 皮聲.)에 의하면, “衾衣”라는 뜻의 名詞이다. 이렇게 「이불」이라는 의미의 名詞이던 것이, 이불의 덮는 작용으로 말미암아 「덮다」라는 의미의 動詞가 되었다가, 덮는 것은 곧 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차츰 被動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 16)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香港, 1984, 56-57쪽 참조. [介, 用于被動句, 引進動作的施動者, 前面的主語是動作的受動者, 動詞後面多有表示完成或結果的詞語, 或者動詞本身包含此類成分, (助)用在動詞前, 表示被動的動作, 但不指明施動者, 不能跟所給把等詞合用.]
- 17) 王自強, 《現代漢語虛辭用法小詞典》, 上海辭書出版社, 上海, 1983, 6-7쪽 참조. 介詞를 「(1)表示被動關係, 在被動式的句子裏, 用「被」引進行爲的主動者——(2)有些被動式的句子, 可以省掉泛指性的或者不說也明白的主動者——(3)——」이라고 하여 세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와 같은 문장에서는, 동사 뒤에 사용된 이불(本義)이라는 名詞이며,

高祖被酒. (高祖가 술을 받다.)

處非道之位. 被衆口之議. (도가 아닌 자리에 있으면, 많은 사람의 모함을 받는다.)

伯通與耿俠游俱起佐命. 同被國恩. (伯 통과耿俠는 함께 왕명을 보좌하게 되었으니 똑같이 국가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被褐而出. 衣錦而入. (베옷을 입고 나갔다가, 비단옷을 입고 들어온다.)

와 같은 문장에서는, 「酒」·「衆口之議」·「國恩」·「褐」 등의 명사 앞에 놓여 「받다」·「입다」라는 뜻의 動詞로 쓰이고,

僕誠以著此書. 藏諸名山. 傳之其人. 通邑大都. 則仆前辱之責. 雖萬被戮. 豈有悔哉. (나는 이책을 지은 의도를 확실히 알고 명산에 감추어 다른 사람에게 전하니 광대한 도읍 속으로 유전되어 내가 이전에 받았던 치욕을 씻을 수 있다면 설령 만 번 죽임을 당하더라도 어찌 후회하겠는가?)

嵇康被誅後. 山公舉康子紹爲秘書丞. (혜강이 피살된 후, 山濤는 혜강의 아들 혜소를 비서승으로 삼았다.)

今兄弟被侵. 必攻者. 廉也. 知友被辱. 隨仇者. 貞也. (지금 형제들이 침범을 당할 때 반드시 공격한다면 염치있는 것이라 하고, 친구가 욕을 당할 때 따라서 원수를 갚는다면 곧은 것이라고 한다.)

萬乘之國. 被圍于趙. (萬乘之國이 趙나라에 포위되다.)

와 같은 문장에서는, 「被」字가 施事者 없이 직접 動詞 앞에 쓰이며, 더우기 「萬乘之國. 被圍于趙」의 경우는, 施事者를 「被」字의 바로 뒤에 써서 표현하는 現代中國語와는 달리, 「見」字의 용법과도 같이, 「于」字를 動詞 뒤에 써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介詞가 아닌 被動을 표시하는 助詞<sup>18)</sup>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18) 詞頭로 볼 것인지, 助動詞로 볼 것인지, 副詞로 볼 것인지는, 「見」字의 論議에서 하기로 하고, 단지 우선 助詞로 한다.

即日被尙書召，以眺補中軍新安王記室參軍。(최근에 상서성에 부름을 받게 되어 나 사조로 하여금 중군신안왕의 기실참군이 되게 하였다.)

諸葛恢大女適太尉庾亮兒---亮子被蘇峻害，改適江綈。(제갈恢의 큰 딸은 태위 유량의 아들에게 시집갔다. ---유량의 아들이 소준에게 살해된 후 강빈에게 개가했다.)

등의 문장에서는, 「被」字의 바로 뒤에 行爲動作의 施事者를 쓰고 있으므로 介詞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학자<sup>19)</sup>는 위와 같이 被動文에 쓰이는 「被」字 까지 도 他動詞로 보는데, 그는 위의 예문

即日被尙書召，以眺補中軍新安王記室參軍.

을 「최근에 상서성이 부르는 것을 당함으로써, 사조가 중군신안왕의 기실참군이 되게 하였다.」라고 해석하여, 「被」字의 뒤에 나오는 小句 「尙書召」를 內包文으로 보고 그것이 전체 문장의 目的語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施事者를 사용한 문장에서, 「被」字와 「見」字가 어떻게 달리 쓰이는가를 살펴보면, 「被」字는 그것의 뒤에 쓰이는 施事者와 함께 介詞結構를 이루어 動詞 앞에 쓰이나, 「見」字는 그런 施事者와 함께 介詞結構를 이루어 動詞 앞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動詞 앞에 바로 나오고, 施事者는 오히려 「于(於)」字를 써서 표시하고 있으니, 「被」字는 施事者를 連繫시켜주는 介詞일 수 있는 반면, 「見」字는 결코 介詞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爲」字를 써서 被動文을 이룰 수 있는데,

厚者爲戮，薄者見疑。(〔情節이〕 무겁고 큰 사람은 살해되고, 가벼운 사람은 의심받는다.)

와 같은 문장에서는, 「爲」字와 「見」字를 함께 써서 모두가 皮동을

19) 橋本萬太郎, 〈漢語被動式的歷史區域發展〉, 《中國語文》1987年 第1期, 36-49 쪽 참조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爲」字도 「見」字와 같이 被動을 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爲」字도 「見」字와 같이 被動을 표시하지만, 「見」字句와 「爲」字句는 다른점이 있는데,

不爲酒困。(술 때문에 곤란을 당하지 않는다.)

止, 將爲三軍獲。(멈춘다면 장차 三軍에게 잡힐 것이다.)

道術將爲天下裂。(도술이 장차 천하 사람들에 의해 분열될 것이다.)

卒爲天下笑。(마침내 천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身死人手, 爲天下笑者, 何也。(몸이 남의 손에 죽어, 천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음은 어떤 일인가?)

身客死於秦, 爲天下笑。(몸은 진나라에서 객사하여 천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았다.)

多多益善, 何以爲我禽。(말을수록 더욱 좋다면 어째서 나에게 사로 잡혔는가?)

僕以口語遇遭此禍, 重爲鄉黨戮笑。(제가 말하는 것이 신중하지 못함으로써 이 환란을 만나고, 거듭 향당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였다.)

吾屬今爲之虜矣。(우리들은 현재 그에게 포로가 되었다.)

何爲爲我禽?(어찌하여 나에게 잡혔는가?)

와 같은 예에서, 「爲」字句는 「爲」字와 動詞 사이에 施事者를 끼울 수 있으나, 이와 달리 「見」字句는 動詞와의 사이에 施事者를 끼울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年四十而見惡焉, 其終也已。(사십 歲가 되었으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마지막이다.)

投我以桃, 報之以李, 卽此言愛人者必見愛也, 而惡人者必見惡也。(「나에게 복숭아를 던져주면 나는 그에게 오얏으로 갚는다.» 곧 이것은 다른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되고, 다른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됨을 말한다.)

出必見辱。(나가면 반드시 욕을 당한다.)

盆成括見殺。(盆成括이 피살되었다.)

百姓之不見保, 爲不用恩焉。(백성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왕께서 은덕을 베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見侮不辱。(기만을 당하나, 치욕으로 여기지 않는다.)

休居鄉不見謂不脩, 臨難不見謂不勇。(孫休는 마을에 살면서 수양이 되지않았다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고, 어려운 일에 임하여 용감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읍니다.)

君子---見由則恭而止, 見閉則敬而齊.--- 小人則不然---見由則兌而倨, 見閉則怨而險.(군자는--- 신임을 받으면 공손하고, 방종하지 않으며, 신임받지 못하면, 존경하고, 스스로 나아가 가다듬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나---; 소인은 그렇지않다--- 신임을 받으면, 기뻐하고, 오만하며, 신임을 받지 못하면, 원망하고, 險惡해진다.)

故君子恥不修, 不恥見汙, 恥不信, 不恥不見信, 恥不能, 不恥不見用.(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을 닦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다른사람에게서 모욕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信實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무능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사람에게 기용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않는다.)

齊桓公---於天下不見謂脩.(제나라 환공은--- 천하 사람들에게 수양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凡人之動也, 爲賞慶爲之, 則見害傷爲止矣.(대개 사람이 행동할 때, 상을 바라고 일을 한다면, 손해를 보는 경우 그만둘 것이다.)

明見侮之不辱, 使人不鬪. 人皆以見侮爲辱, 故鬪也; 知見侮之爲不辱, 則不鬪矣.(기만당하는 것이 체면을 손상하는 것이 아닌 것을 설명하면, 다투지 않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만당하는 것은 체면이 손상되는 것이라고 여기므로 다투며; 기만당하는 것이 체면이 손상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 다투지않을 것이다.)

齊趣下三國, 不且見屠.(齊나라가 재빨리 三國에 投降하지 않으면, 장차 屠殺당할 것이다.)

根[王根]言雖切, 猶不見從.(王根의 말이 비록 절실하나, 오히려 따를 수가 없다.)

臣聞武帝使中郎將蘇武使匈奴, 見留二十年.(신이 듣기로는 武帝가 中郎將 蘇武를 匈奴에게 사신으로 보냈는데, 구금된지 二十年이 되었다.)

등과 같은 「見」字句는 어디에서도 施事者를 찾아볼 수 없다.

더더욱 施事者를 표시할 때는, 예를 들어:

吾長見笑於大方之家. (나는 덕을 닦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且夫有高人者之行, 固見負于世, 有獨知之慮者, 必見訾于民. (또한 고상한 행위가 있는 자는 본디 세상 사람들에게 짐이 될 것이고, 독특한 사려를 가진 자는 반드시 일반 백성에게 조소를 당한다.)

以四百里之地見信于天下, 君猶得也. (사백리의 땅을 갖고서 천하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으니, 임금께서는 오히려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昔者彌子瑕見愛于衛君. (옛날에 彌子(彌子)는 위나라 임금에게 총애를 받았다.)

文王所以見惡于紂者, 以其不得人心耶. (문왕이 주에게 미움을 받은 까닭은 그가 인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가?)

蔡澤見逐於趙. (蔡澤은 조나라에서 쫓겨났다.)

先絕齊而後責地, 則必見欺於張儀. 見欺於張儀, 則王必怨之. (먼저 제나라와 절교하고 후에 땅을 요구 한다면, 반드시 張儀에게 속임을 당하고, 張儀에게 속임을 당하면, 왕이 반드시 원망할 것입니다.)

臣誠恐見欺於王而負趙. (신은 왕에게 속임을 당하여, 조나라 임금의 명령을 저버릴까 진실로 두렵습니다.)

와 같이 「於(于)」字와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때로는 「爲」字와 「見」字를 함께 배열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烈士爲天下見善矣. (烈士는 천하 사람에게 찬미를 받는다.)

와 같이 「爲」字는 施事者의 앞에, 「見」字는 動詞의 앞에 놓아,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先秦시기에 유행한 「爲」字句의 被動式은 더욱 발전하여, 「爲----所」式<sup>20)</sup>으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20) 「所」字를 쓰는 문장은 「所」字를 쓰지 않는 문장에 비하여, 「受事者가 어떤 모양으로 변한 것은 곧 施事者가 만든 것임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漢軍却，爲楚所擠。(한나라 군사가 퇴각하여, 초나라에게 구제되었다.)

無爲有國者所霸。(君主에게 속박되지 말라.)

吾悔不聽蒯通之計，乃爲兒女子所詐，豈非天哉。(나는 蒯通의 계락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지금 아녀자에게 기만당하니, 어찌 天意가 아니겠느냐?)

始月氏居敦煌 祁連間，及爲匈奴所敗，乃遠去，過宛，西擊大夏而臣之，遂都媯水北，爲王庭。(처음에는 月氏가 敦煌 祁連 一帶에 살다가, 이후에 匈奴에게 패하여, 비로소 멀리 떠나, 大遠을 거쳐, 서쪽으로 가서 大夏를 공격하여, 그 땅을 다스리다, 드디어는 媯水의 북쪽에 도읍을 정하고 王庭으로 했다.)

爲解所殺。(郭解에게 살해되었다.)

衛太子爲江充所敗。(衛太子가 江充에게 敗했다.)

章由是見疑，遂爲鳳所陷。(王章은 이것 때문에 의심받고, 마침내 王鳳에게 모략을 받았다.)

范雎爲須賈所讒。(范雎는 須賈에게 讒訴받았다.)

등이 있는데, 이런 結構는 古代中國語 被動文의 正常的인 格式이 되었고, 심지어는 후대 現代中國語의 「被」字句에 이르기 까지, 때로는 古代中國語의 영향을 받아 「所」字를 삽입한다. 예를 들면:

父母已亡，或被叔伯兄弟所賣 (부모가 벌써 돌아가시자, 어떤 자는 伯叔父와 형제가 팔아버렸다.)

她怕被官軍所俘，自刎而死。(그녀는 官軍에게 포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他們的政權被內外反動派所推翻。(그들의 정권은 내외의 반동파에게 전복되었다.)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위의 문장을 「見」字句와 비교해 보면, 「見」字의 자리에 「所」字가 있고, 「見」字句에서는 「於(于)」字를 써서 나타내었을 施事者가 「爲」字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즉 「見」字句에서 施事者는 결코 「見」字와 결합하여 介詞結構를 이룰 수 없으므로 介詞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見」字는 「보다」라는 의미의 動詞로 쓰이는 경우 외에도 被動文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被動文에 사용되는 「見」字는 그 品詞가 介詞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의 品詞를 무엇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副詞로 보기도 하고<sup>21)</sup>, 被動을 표시하는 詞頭로 보기도 하며<sup>22)</sup>, 助動詞로 보기도 하고<sup>23)</sup>, 助詞로 보기도 한다.<sup>24)</sup>

일반적으로 副詞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자체로는 홀로 실제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며, 적당한 結構에 부속시킬 때, 비로소 수식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被動文에 쓰이는 「見」字를 살펴보면, 「見」字도 역시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자체로는 홀로 실제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며, 動詞 앞에 쓰일 때 비로소 被動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被動文에 쓰이는 「見」字는 단지 動詞의 앞에 위치할 뿐, 결코 形容詞의 앞에 위치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副詞의 경우 形容詞 앞에도 위치할 수 있으므로, 「見」字를 副詞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見」字가 단지 動詞의 앞에 위치할 뿐, 결코 形容詞의 앞에 위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助動詞도 단지 動詞 앞에 사용되므로, 「見」字를 助動詞라고 할 수 있는가?

21)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서울, 1989, 61쪽 참조. 「副詞로서 被動을 표시한다.」

22) 許世瑛, 《談談「見」字和「相」字的特殊用法》, 《許世瑛先生論文集 第二集》, 弘道文化事業有限公司, 臺北, 民國63年, 15-21쪽 참조. 「第一, 被動句中, 放在動詞的上面, 它不再作普通的動詞用了, 只能算做一個表被動的詞頭, 放在動詞的上面. ---」

許世瑛, 《常用虛字用法淺釋》, 復興書局, 臺北, 民國70年, 251쪽 참조. 「---因而「見」字可以算做詞頭, 「被」字卻不能算是詞頭. ---」

23) 王力, 《漢語史稿》, 422쪽 참조. 「用「見」字作爲助動詞. 「見」字句和「爲」字句的不同之點是: 「爲」字和被動詞的中間可以插進一個關係位名詞(即施事者); 「見」字和被動詞的中間不能插進一個關係位名詞.」

24) 李書華·黃漢承, 《文言語法講話》, 知識出版社, 北京, 1988年, 53쪽 참조. 「主要用法有三種: (一)作助詞; (二)作指代性副詞」

助動詞는 문장에 사용될 때,

師勞力竭，遠主備之，無乃不可乎？(군대가 지치고 병력이 다하였는데 먼 곳의 군주가 이를 준비하면, 아마도 이길 수 없겠지요?)

과 같은 예에서, 「可」字와 같이 그것이 단독으로 述語가 될 수 있을 만큼, 대체로 그 자체의 動詞性이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고,

始者謂子建兒中最可定大事 (처음에 子建이 아들 중에서 큰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 같은 예에서, 조동사 「可」字는 그것에 해당되는 동사 「定」字에 대하여만 보조하는 작용을 할 뿐 결코 主語의 상태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見」字의 경우는 被動文에 쓰일 때는, 단독으로 述語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다」라는 의미로 표현되는 그 자체의 動詞性은 이미 소실 되었으며, 그것에 해당되는 동사에 대해서만 보조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主語의 입장이 主動의 立場이 아닌 被動的의 立場인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見」字를 助動詞로 분류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古代中國語에서,

君子欺於小人。(君子가 小人에게 기만당하다.)

韓信擒於漢高祖。(韓信이 漢高祖에게 사로잡혔다.)

勞心者治人，勞力者治於人。(마음을 쓰는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자는 사람에게 다슬린다.)

과 같은 예를 보면, 동사 「欺」·「擒」·「治」의 앞에 「見」字가 없어도, 피동의 의미에 어떤 變化가 있는 것이 아닌데, 만약 그것이 副詞나 助動詞라면 의미에 변화가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또한 詞頭나 詞尾는, 本稿에서는 品詞로 설정하지도 않았는데, 설령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率爾」·「學者」·「老虎」 등에

서와 같이, 「率」·「學」·「老」 등의 形態素에 附加的으로 첨가되어, 副詞과 名詞라는 單語를 이루는데, 「見」字의 경우는 뒤에 오는 形態素<sup>25)</sup>와 더불어 함께 어떤 品詞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見」字를 詞頭로 분류하기에도 마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見」字의 品詞는 결국 助詞라고 할 수 있는가?

흔히 助詞는 單語나 詞組 등에 붙어 일정한 부가적 의미가 첨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見」字의 경우 動詞의 앞에 붙어, 부가적의미라고 할 수 있는 被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見」字를 助詞로 분류하는 것이 副詞·詞頭·助動詞 등으로 분류하는 것에 비해 합리적인 것이다.

### 3.2 受事者를 지시하는 경우

「見」字가

非其鬼而祭之，詔也。見義不爲，無勇也。(나의 귀신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은 아침이고, 정의를 보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我未見力不足者。(나는 아직 힘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孺悲欲見孔子，孔子辭以疾。(孺悲가 공자를 만나 보고자 했으나, 공자께서 병을 빙자하여 거절하셨다.)

등의 例에서와 같이, 「보다」라는 의미의 動詞로 쓰이면, 「見」字의 뒤에 다시 動詞가 올 수 없고, 名詞나 代詞 등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被動文에 쓰이는 「見」字는, 「君子見欺於小人」과 「韓信見擒於漢高祖」 등과 같은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動詞인 「欺」과 「擒」 등의 앞에 놓인다. 그러나 「見」字가 動詞의 앞에 놓인다고 모두 被動文인 것은 아닌데, 그 예를 보면,

生孩六月，慈父見背。(제가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인자하신 父親께

25) 形態素이자 곧 單語(動詞)이다.

서 저를 떠났습니다.)

祖母劉愨臣孤弱，躬見撫養。(祖母 劉氏가 내가 외롭고 약한 것을 가엽게 여겨, 친히 나를 보살펴 주셨다.)

같은 문장에서도, 「見」字는 動詞 앞에 놓이고 있다. 만약 위의 문장에서 「見」字가 動詞 「背」와 「撫養」의 앞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被動文으로 본다면, 「生孩六月，慈父見背」의 「見背」는 「被背」로써, 「부친께서 밝혀지지 않은 主動者에 의해 배신을 당하다.」 또는 「이별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되어 합리적이지 못하다. 즉 「見背」는 결코 被動句로 보아선 안되고, 「背我」·「離我」의 뜻으로 보아야 하므로, 「見」字는 動詞 뒤의 생략된 目的語인 「我」를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祖母劉愨臣孤弱，躬見撫養」에서도, 「躬見撫養」가 被動句라면, 祖母 劉氏가 主語이므로, 「祖母 劉氏가 내가 외롭고 약한 것을 가엾게 여겨, 친히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보살피자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이것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며, 이곳의 「見」字도 動詞 뒤에 놓여야 되는 「我」를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그러므로 우리는 앞의 論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被動文에 쓰이는 「見」字와 같이, 그것이 비록 動詞의 앞에 쓰인다고는 하지만 결코 被動文과 같은 성격의 助詞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初，蘇秦之燕，貸人百錢爲資，及得富貴，以百金償之。遍報諸所嘗見

26) 중국의 문법학자 許世瑛씨는 그의 《常用虛字用法淺釋》이란 책(復興書局, 臺北, 民國70年, 253쪽 12행 ~ 254쪽 3행)에서, 蕭統이 그의 《昭明文選》에 위의 문장을 수록하면서, 「見」字가 이런 指示作用이 있는 것을 모르고, 「見」字를 「親」字로 바꾸어 「躬親撫養」으로 수록하였고, 《古文觀止》와 같은 그 후에 나온 많은 選本들도, 《文選》의 잘못을 따라, 「躬親撫養」으로 수록하고 있지만, 다행히 《三國志蜀志楊戲傳》과 《晉書李密傳》 등은, 「躬見撫養」으로 수록하고 있어, 「見」字의 이런 용법을 이해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蕭統雖把這篇陳情表，選入他的昭明文選中，卻因不知「見」字有這一個指示作用，竟把「見」字改成「親」字，成爲「躬親撫養」。嗣後的選本，都承文選之誤，最明顯的「古文觀止」不故作「躬親撫養」嗎？咱們小時候背誦的，也不都是「躬親撫養」嗎？幸虧三國志蜀志楊戲傳和晉書李密傳，都作「躬見撫養」啊！---)

德者. (처음에 소진은 연나라로 가서 사람에게 백전을 빌려 장사를 하였다. 부귀해진 후에는 백금을 그사람에게 돌려주었고, 아울러 일찍이 자기에게 德을 베푼 사람들에게 널리 보답했다.)

自陳卓幾見殺之狀. (스스로 董卓이 몇 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상황을 진술했다.)

冀君實或見恕也. (자네가 진실로 나를 용서해 줌이 있기를 바라네.)

公曰:「欲之而言叛, 祇見疎也.」(공이 말하기를 「그것은 바라보면서도 반란이 일어났다고 말하니, 단지 나를 소원히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했다.)

莊王不爲小害善, 故有大名, 不蚤見示, 故有大功. (장왕은 작은 것을 위하여 훌륭한 것을 해치지 않았기에 큰 이름을 날렸고, 일찌감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큰 공적을 세운 것이다.)

寡人以王子爲子任, 欲子之厚愛之, 無所見醜. (과인은 왕자를 그대에게 맡기니, 그대는 그를 깊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바가 없기를 바란다.)

과 같은 많은 예가 있는데,

그렇다면 위의 많은 예에 보이는 「見」字의 品詞는 무엇일까?

학자들의 論議에 의하면, 「見」字가 이렇게 動詞 앞에 놓이나 被動文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見」字를 關係詞로 보기도 하고,<sup>27)</sup> 指代性副詞로 보기도 하며,<sup>28)</sup> 助詞로 보기도 한다<sup>29)</sup>.

27) 許世瑛, 〈談談「見」字和「相」字的特殊用法〉, 《許世瑛先生論文集 第二集》, 弘道文化事業有限公司, 臺北, 民國63年, 16쪽 참조. 「筆者的意見: 以爲還是把它看成一個關係詞. ---」

許世瑛, 《常用虛字用法淺釋》, 復興書局, 臺北, 民國70年, 252쪽 참조. 「但是不如把它算做一個關係詞. ---」

여기서 關係詞라고 함은 品詞와 品詞의 關係를 연결시키는 작용을 하는 介詞와 句文과 句文의 關係를 연결시키는 작용을 하는 連詞를 함께 통칭하는 用語이다.

28) 李書華 黃漢水, 《文言語法講話》, 知識出版社, 北京, 1988年, 53쪽 참조. 「在漢末及魏晉六朝的作品裏, 「見」置于動詞前, 起指代作用, 成爲一種指代性副詞, 最常見的是指代第一人稱.」

李潤, 〈「見」字的第三人稱指代作用及其成因初探〉, 《語言文字學》, 1985년 3월, 40쪽 참조. 「「見」字用在動詞之前, 除作助動詞表示被動外, 還可作指代性副詞, 指代第一人稱.」

29)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서울, 1989, 64쪽 참조. 「조사로서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며 동사 앞에 쓰인다. 이러한 용법은 행위의 피동자를 주어

關係詞로 보는 見解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子怙父」는 하나의 詞組 「子所怙之父」로 고칠 수 있는데, 여기의 「子」와 「之父」는 모두 생략하여 「所怙」라 할 수 있다. 같은 이치로 「所愛」는 반드시 「所愛之人」·「所愛之物」·「所愛之事」의 생략인 것이며, 이곳의 「人」·「物」·「事」는 본래 「愛」의 目的語이다. 즉 「所」字는 動詞 앞에서 指示作用을 갖춰, 讀者에게 「所」字의 아래에 있는 「之」字와, 본래 動詞의 目的語가 되는 하나의 명사가, 생략된 것을 알려주고 있다. 같은 이치로 「見」字도 動詞 앞에 놓여 「所」字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關係詞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關係詞라고 설정한 것은 本稿에서 品詞의 분류에서 설정한 것 중에서, 虛詞의 일종인 介詞와 連詞를 포괄하는 것인데, 이곳의 「所」字나 「見」字는, 실제적인 語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단지 일정한 문법적인 의미 만을 나타낸다는 虛詞의 기능과는 다르게, 실제적인 語彙의意味를 갖추고 있으며, 특성상 단독으로는 문장성분이 될 수 없는 連詞나 介詞와는 달리 目的語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關係詞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

指代性副詞로 보는 견해를 살펴보면,

이러한 견해는 어떤 副詞는 문장에서 關係作用을 한다는 것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現代中國語의 「如果你去, 我就去。」라는 문장에서, 副詞 「就」는 關係作用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關係作用을 갖는 副詞는, 連詞와는 달리 문장에서 그것을 생략하면 그 문장의 의미가 불분명해진다. 즉 위의 문장에서, 連詞인 「如果」만 생략하여 「你去, 我就去。」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변화되지 않지만, 만약 連詞인 「如果」과 副詞인 「就」조차도 생략하여, 「你去, 我去。」라고 한다면, 그 문장의 의미는 본래의 문장과는 달리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되고 만다. 이와 같이 「見」字도 문장에서 생략된다면 그 의미는 결코 분명하지가 않다. 또한 現代中國語에서 關係作用을 일으키는 副詞로 분류되는 「就」·「都」·「也」·「又」·「再」·

---

로 삼지 않고 행위의 주체자를 주어로 삼는다. 따라서 해석할 때는 그것을 '나' 혹은 '자기'로 바꾸어 동사 뒤에 둘 수 있다.

「還」·「卻」·「便」 등과 같은 글자는 주어의 뒤 그리고 述語로 쓰이는 動詞나 形容詞의 앞에만 사용되는데, 「見」字도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關係作用을 일으키는 副詞는, 「說幹就幹」과 「死也不投降」과 같이, 일반적으로 흔히 두개의 動詞나 形容詞를 關係짓고 있는데, 「見」字의 경우는 결코 두개의 動詞나 形容詞를 關聯짓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副詞로 설정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助詞로 보는 견해를 살펴 보면,

助詞란 다른 단어나 詞組와 문장 등에 붙어 일정한 문법의의 結構關係나 語氣 등을 표시하는데, 古代中國語에서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見」字와 같이 動詞의 앞에 쓰이는 助詞를 찾아보면,

宋何罪之有. (송나라는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余雖與晉出入, 余唯利是視. (내가 비록 진나라와 내왕할지라도 나는 오직 이익만을 볼 뿐이다.)

我周之東遷, 晉鄭焉依. (우리 주 왕실이 동쪽으로 천도하면, 진과 정나라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朋酒斯饗, 曰殺羔羊. (두 동이의 술을 마시고 작은 양과 큰 양을 도 살했네.)

豈不懷歸, 是用作歌, 將母來諗. (어찌하여 돌아갈 생각을 못 하는가. 이 때문에 이 노래를 지어 어머니를 생각한다.)

등의 「之」·「是」·「焉」·「斯」·「來」와 같은 글자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장에 쓰이는 助詞는 目的語를 강조하기 위하여 목적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결코 「見」字와 같이 受事者를 지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언뜻 보기에 「見」字가 結構關係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 때문에 助詞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見」字를 명사를 대신하는 代詞라고 한다면, 그것을 關係詞·副詞·助詞 등으로 분류하는 것에 비해 합리적이므로, 이런 용법으로 쓰이는 「見」字를 代詞라고 확정하기로 한다.



#### 4. 맺음말

本稿는 「見」字의 특수용법으로 두가지 용법을 제시하고, 두가지 용법에 쓰이는 「見」字의 品詞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被動文에 쓰이는 「見」字는, 그것의 品詞를, 副詞 被動을 표시하는 詞頭·助動詞·助詞 등으로 분류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였고, 결론적으로 助詞는 單語나 詞組 등에 붙어 일정한 부가적 의미가 첨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見」字의 경우 動詞의 앞에 붙어, 부가적의미라고 할 수 있는 被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見」字를 助詞로 분류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또한 受事者를 지시하는 「見」字는, 그것의 品詞를, 關係詞·指代性副詞·助詞·代詞 등으로 분류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代詞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見」字의 용법을 고찰함에 있어서, 受事者를 지시하여 代詞라고 할 수 있는 「見」字는, 本稿에서 단지 一人稱을 指示하는 경우만을 나열하였으나, 이외에도 三人稱을 지시할 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受事者를 지시하여 代詞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見」字 외에도 「相」字가 있는데, 앞으로 代詞로 쓰이는 「見」字의 경우는 「相」字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두 글자의 용법의 차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 볼 필요를 느낀다.

#### 參考文獻

- 橋本萬太郎, 〈漢語被動式的歷史·區域發展〉, 《中國語文》1987年 第1期
-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서울, 1989
- 鄧福南 著, 宋龍準 譯, 《現代中國語文法の 諸問題》, 中文出版社, 대구, 1991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香港, 1984 王力, 《漢

語史稿》

- 王自強, 《現代漢語虛辭用法小詞典》, 上海辭書出版社, 上海, 1983
- 李書華·黃漢丞, 《文言語法講話》, 知識出版社, 北京, 1988年
- 許世瑛, 〈談談「見」字和「相」字的特殊用法〉, 《許世瑛先生論文集 第二集》, 弘道文化事業有限公司, 臺北, 民國63年
- 許世瑛, 《常用虛字用法淺釋》, 復興書局, 臺北, 民國70年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香港, 1983年
- 吳仁甫, 《文言語法三十辨》, 華東師範大學出版社, 上海, 1988年
- 羅振乾 외 2人, 《文言實詞圖解詞典》, 廣西師範大學出版社, 桂林, 1990年
- 李潤, 〈“見”字的第三人稱指代作用及其成因初探〉, 《語言文字學》, 1985년 3월, 40-44쪽
- 廖序東, 《文言語法分析》, 上海教育出版社, 上海, 1981년